대학원생 세미나 14. 3.20.

리딩: Ferguson, Yale H., and Richard W. Mansbach. 2004. Remapping Global Politics : History's Revenge and Future Shock,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K ;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제: 송지예

<발제>

- 세계화 진행, 국가가 정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을 것인가? 기존의 역사에 대한 시각에는 상당히 동의하고,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모호하다고 함.

- 저자들이 역사를 강조 부분. Lake와 유사. Identity측면에서 행위자가 규범을 바뀔 수 있는데, 생각의 부분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의 가능하다.

최인호: International을 넘어서, Global politics를 Remap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International Politics라고 하면 명확히 들어오는데 Remapping Global Politics라고 하면 막연한 느낌이 있음. 나는 아직까지 ‘국’이 너무 익숙하다

이보미: mapping이 이미 되어있는데, re-하겠다고 함. 그렇다고 국가행위자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기존의 그림에 연속성, ‘변화’를 말하는데 transformation인지, 그 속성을 가져가면서 확장인 것인 것. 그 변화에 대해서도 변화가 어떤 정도에서 바뀌어서 진짜 remapping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최인호: 이 논의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나, 보고 느끼다 보니까 International의 느낌이 있어서, 세상의 mapping의 한계를 넘고자 함. 언제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이미 이것 자체가 저자들의 상상력인데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지적 상상력이 왜 떨어지는가?

이보미: 정체성 부분에서 저는 한국에 살아서 서울시민, 그 이하보다 한국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다른 지역은 다른 identity가 강할 수도 있겠다. 지금 전 소비에트 지역만 봐도 혼재된 정체성, ‘주’ 단위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노동, 여성, 환경으로 묶이는 집합들이 영향을 미침. 그런 identity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일본여성단체들도 위안부를 지지,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서 그만큼 시민사회가 작동 가능한가?

송지예: Lake의 이론화 과정. Theory는 intuitive함. 현실을 보지만 현실만을 축적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론가의 관점에 따라서 만들어 질 수 있다.

최인호: ‘직관’은 둘 다 가능. Representative한 이론을 만들 때도 잘 찍어야 되므로, creative한 이론을 만들 때도 그러함. 고정된 사진이 있고 찍는 것과. 둘 다 ‘직관’이 필요하지만 이론의 목표 다름. Intuition은 다름

송지예: Imagination은 비슷함.

최인호: 경험주의를 포기하지 않지만, 간주관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자. 실제 뽑은 지표와 맞아서 맞는 theory-rule을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theory creative하면 간주관적으로 합의 가능하다고 함. 객관적 진리가 있고, 이를 모사한 가설을 맞추는 그런 모델은 아님. Theorizing is act of creation.

송지예: 티벳에서 태어났다면 국가와 다른 종류의 상상력을 가짐. 단위체가 국가가 아니고 지역 정도? 그런 면에서 이론화를 한다면 여전히 국가 base된 이론 밖에.. 근본적인 의문?

용채영: 하지만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국제정치의 경험을 이론화해야 한다라는 것도 규범적 주장의 하나임.

최인호: 미래의 방향성이 있어서 낙오 되는 것인가? 각각 독특한 국제정치적 삶 속에 살면서 하는 것이 맞나? 표준론 들은 있음. 복잡함을 잘 소화한 쪽이 있고, 낙오된 쪽도 있고.

송지예: 내 입장이 안 섬.

이보미: IR의 이론, 보는 ‘시각’ 설명 방식임. 여기에 당연히 말로 풀어낼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 정립이 된 것은 아니나, 한 쪽, 그 쪽에 기반해서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

최인호: 받아들인 채로 가냐 해체하고 가냐?

이보미: unit을 계속 다양하게 설정. 이들을 다 국제정치 판으로 데리고 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음. 삼각관계를 다룸, 사 차원, 양자 -4자? 유형화? 복잡해짐.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unit을 다르게 해서 이들 간 power의 역동을 생각하면 머리 속에 들어올 글인가?

이론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왜 안되지? 다중거울. 백미러 여러 군데에 있음, 이 쪽만 보이고. 뒤의 것에는 그것만 보이고. 거울을 통해 보는 면이 다름. 이론은 사실은 어떤 한 측면만 보여주므로 이를 다양하게 봐야 한다라는 도구적인 측면에 적용.

최인호: 이론, 도구적인데. 그게 내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simple하게 생각하는 쪽이 편한 쪽이 있음.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도 있나? 세상을 cynical하게 보고, 다 싸움판이라고 보는 것은 다 잘 보임. 아무리 렌즈를 여러 개 껴도.

용채영: 학부 이론수업을 들으면서.. 이론이란 영화 내셔널 트레저에 보면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한 이중초점 안경이 나온다. 양쪽에 각각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색이 부착된 이중 렌즈의 조합을 통해서 보이는 숨겨진 암호가 다 다름. 처음에 이론도 비슷하게 생각, 각 이론들을 렌즈라고 보면 각각을 통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다르지만 각각을 통해 보이는 것을 종합했을 때만 완전히 해독이 가능.. 하지만 각 이론들을 요소 별로 자의적으로 조합해서 다 보자는 수준의 분석적 절충주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

최인호: 뭔가, 복잡한 시각을 다 엮어서 봐가 지고, 직관적으로 전체가 잡히는 수준이 될까? 뭔가 첫 출발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시각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현실주의, 보여주는 현실의 깊이가 다른 듯. 모겐소 등. 생각이 정말 복잡했다는 것이 보임. 그게 이론을 한번 다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님. 현실을 이론화 한 것, 현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라고 해야 이론이지. 이 정도로도 의미가 있음. 이론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인 듯. 이론은 이론임.

최인호: 이론을 안 맞는 부분 찾기? 현실과 이론하고. 선생님들은 여러 번의 반복된 실험의 결과 있는 듯. 이론이 대충 여기서 맞고,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미진하다.

송지예: 짧은 글이라도 현실에 맞고, 안 맞고의 부분을 ‘글을 써봐야 알 듯’.

이보미: 변화의 이야기, 변화 중의 하나가 unit의 변화 unit의 변화에서 individual의 이야기를 함. 교육을 많이 받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기술적, 과학적 환경이 setting. 다른 개인들이 grouping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옴. 그런 변화를 보고 변화가 과거의 ‘국가’라는 unit에 초점을 둔 이론가. 분명 다른 현실에 펼쳐짐. 과거 이론이 설명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다름. But 개인으로 가면서. 혼란스러운 것, 모든 individual이 같은 영향력 행사하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individual이 있음. 그런 group이 있고, 국가 이상의 단위들이 생김. 어떻게 얘들을 sort하는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

송지예: 개인도 있고, Polities라는 용어를 사용. 국가를 아주 큰 UN의 기구 등. 다양한 복잡하게 얽힌 층위가 다른 여러 행위자들이 겹쳐져 있는데, 상상으로는 되는데. 이론화? 국가 중심주의에 빠져 있나? 상상? 이론화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parsimony에 대한 부담감

최인호: 역사를 몰라서? 복합? 역사성? 복합되는 조직원리들을 하나 하나 이해 했으면 다 보일 수도 있음. 우리는 근대국제정치만 익숙한 상태.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인가? 직관적으로 안 와 닿는 것은 그러 함. 명, 청 시대를 보니까 Hierarchy는 와 닿음.

송지예: heterarchy의 구조. 복합 조직원리의 책, 공감은 가지만. empirical하지 않다. 구체화, 개념화가 필요함.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이 없을 때,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긴 시간을 다르면서 주권은 어땠고, 어땠고 할 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가 없을 때 문제.

이보미: 질서, 행위로 다 설명이 안 된다. 양자관계 속에서 안 지킬 수도 있음. 이는 반항하는 것이지 질서를 깨는 것은 아님. 질서 안에서 자기장처럼 움직이는 힘들은 질서는 있음. 그 안에서의 행위는 질서의 주요 흐름은 지속되는 흐름이 길다. 행위로 질서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

최인호: 이론화를 하려면 과학적 엄밀화, system을 하고. 국가들의 행위원칙을 이야기하고, test를 한다면? 그것이 갖추어지면 이론화가 되었다? 사대자소의 원리에서는 ~게 행동을 한다. 조선은 전쟁이 나도 끝까지 개긴다. 명에 충성. 그러나 이적국가의 경우엔. Anarchy 처럼 돌아간다. Unit이 다르고, 각각 다른 unit마다 힘의 배분상황이 변화할 때 다르게 행동한다. 지금은 막 섞어볼 필요도 있을 듯. 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송지예: 어떻게 해서 조약을 맺어야 했을까? 증명? 왜 고종은 중국과의 외교사절관계 이외에 미국, 일본 등을 상대로 교린. 미국, 영국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정치조직, 정부조직을 만들려고 생각했나? 당시의 조선인들의 인식을 보려면 분석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전통시대의 체제랑 조약체제랑 overlap되는 부분이 있음. Order는 지속되는데, 행동을 안 해서 order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기존의 order는 이야기하는데, 행동의 예측의 범위가 있음. 반항이든, 순응이든. 상상의 영역, 조선의 행동반경이 범위가 있음. 중국이 놀라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 조약체계에서는 증명 가능. 내가 서술 할 때, 언어로서 보여줘야 하는데. 질적 연구로서.

최인호: 행동, 사고의 기본 원리. 대의명분이 있음. 그 사람들도 우리는 구분 안 되는 단어인데 엄청 중요하게 구분. 권, 경. 국가의 보국안민을 위해서 때로는 경도에서 벗어나는 일도 해야 한다. 마키아벨리, 기본적인 도덕에서 벗어날 지어도. 나쁜 짓을 해야 한다. 그것도 morality를 포기한 것을 아님. 다양한 면모가 있음. 하나의 stereotype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 있었던 듯. 그 다른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사상도 해야 함. Politics 안에 power가 들어감. 이 쪽은 아님. 다 세뇌가 되어 있음. 그 쪽의 현실주의적 면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를 동양/서양 대립항으로 빠지는 것은 아님. 왕은 한 번 바뀔 때마다. 현실적이 작용하는 가운데, 사대자소의 예.

역사학자들은 다 함. 왜 우리는 이론화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을 보편적으로 써야 함. 거기에 전통질서 공부하는 의의? 새로 그들이 하지 않은 것, logic의 차원에서도 그들보다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일은 저 사람들은 거기에 빠진 것이고 우리는 따른 국제정치학자들의 관련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인지.

깔끔한 연구에 대한 끌림. 이 쪽하고만 비교를 해 준다고 하면. 명-조선 사이의 국가관계가 ‘예’라고 묶였으면 shocking이 아닌가? 한 나라가 다른 국가 사이에 강력한 규범적 관계를 갖고 평화는 아니라 한 집안으로 지냄. 엘리트 사이에는. 국가의 사이에서는 신기한 것이 아닌가? 중세는 다름. 체계 차원의 identity공유가 된 적이 있었나?